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오전에는 'AI 업무 사용법'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연준 관리들, “트럼프 관세로 인플레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S&P 500 지표, 2년 만에 처음 베어 마켓 국면 진입

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, “대중 관세 80%가 적절할 듯”
- WSJ: 미·영 관세 타결, 다른 국가들에 모델이 되지 못했다
- Bloomberg: 협상 시작한 베트남, “트럼프 관세 비합리적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미 17개 주, EV 충전 인프라 예산 중단 결정 트럼프 고소
- Bloomberg: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, 차량 가격 인상 초래 예상
- Bloomberg: Old Navy, 2025년 뉴욕 최대 규모 소매 임대 계약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More Fed officials warn Trump tariffs could produc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

연준 관리들, “트럼프 관세로 인플레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”

- 연준 이사 Michael Barr와 뉴욕 연중 총재인 John Williams는 오늘 금요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해 물가와 실업률 상승,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.
- 백악관의 무역 정책이 아직 경제에 미치는 상황이 불확실 가운데 연준이 현재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개 목표에 균형을 잡으려는 애쓰는 상황을 보여주는 발언이다.
- 파월 의장도 어제 수요일 통화 정책 결정전에 관세 여파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Key S&P 500 Model Turns Bearish for First Time in Two Years

S&P 500 지표, 2년 만에 처음 베어 마켓 국면 진입

- 주식 시장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인 Equity Market Regime Model (Bloomberg Intelligence model)에 따르면, 무역 전쟁에 따른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미 기업들의 수입 전망이 하려지는 가운데 S&P 500지수 수익이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. 이 모델이 2022년 2월 아래 첫 베어 마켓 국면에 들어선 신호라는 것이다.
- 이 모델 지수는 3월과 4월에 적신호 영역에 들어섰는데, 과거에 이같은 구간에 들어서면 향후 12개월에 S&P 500이 평균 5.6% 떨어진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무역 전쟁]

Bloomberg: Trump Says 80% China Tariff 'Seems Right,' Ahead of Talks 트럼프, “대중 관세 80%가 적절할 듯”

- 미·중간에 관세 협상이 내일 토요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80% 가능성 제기했다. 그러면서 그는 미국 상품에 대해 중국이 문화를 개방할 것으로 촉구했다.
- 그는 소셜 미디어에 “중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며 닫혀있는 시장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”라고 올렸다.
- 한편, 연방 재무부 장관과 USTR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중국 부총리를 만나 관세 협상을 할 예정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Trump's Bespoke Trade Deal With U.K. Sets Little Precedent for Other Nations

미·영 관세 타결, 다른 국가들에 모델이 되지 못했다

- 이번 주에 미국과 영국의 관세를 타결지었다.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협상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관련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.
-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은 제한적이라 다른 국가들에게 분명한 로드맵을 주지 못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쉽게 협상을 타결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.
- 한편, 트럼프는 재무장관과 USTR을 보내 미·중 간의 고위급 관세 논의를 할 예정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Vietnam Calls Trump Tariff 'Unreasonable' as Trade Talks Start

협상 시작한 베트남, “트럼프 관세 비합리적”

- 미국과 베트남이 관세 협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베트남 무역부 책임자는 트럼프의 베트남에 정해진 상호 관세율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자국 베트남 회사들과 관련 단체들이 미 행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트럼프 관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, 또한 미국 파트너 회사들과도 협력해 베트남산이 미국에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.
- 한편, 트럼프는 지난달 2일에 베트남에 46%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90일 유예 기간에 10%로 한시적으로 낮췄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California Sues Trump Administration Over Halt to EV Charging Funds

미 17개 주, EV 충전 인프라 예산 중단 결정 트럼프 고소

- 캘리포니아와 워싱턴, 콜로라도 등 17개 민주당 주정부는 고속도로 EV 충전기 구축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중단한 트럼프의 결정이 기후 대응과 대기 오염 저감 노력을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.
-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무배출 차량의 30% 이상을 판매하고 있으며, 이번 예산 중단은 EV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- 트럼프는 또한 EV 세액공제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일부 철회도 추진 중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Why Trump's Auto Tariffs Are Poised to Drive Up Car Prices

트럼프의 자동차 관세, 차량 가격 인상 초래 예상

- 4월 3일부터 발효된 외국산 차량에 대한 25% 관세는 자동차 가격을 수천 달러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. 특히 저가 모델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돼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.
- 자동차 부품에도 25% 관세가 예정돼 있었으나, 업계 반발로 2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결정됐다. 제조사는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USMCA 조건 충족 차량은 25% 관세에서 면제된다.
- 2024년 미국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약 50%는 해외 조립 차량이었으며, 특히 GM·도요타·현대차 등은 한국, 일본, 멕시코 등에서 많은 물량을 수입해 타격이 예상된다.
- 컨설팅업체 Anderson Economic Group의 추산에 따르면 럭셔리 SUV, 배터리 전기차(EV), 유럽 및 아시아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격은 1만 2천 불 이상 상

승할 수 있다. 미국에서 국내 부품 비중이 높은 차량도 2천~3천 불의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.

- 관세 인상에 따라 신차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며 여름철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.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, 부품 비용 상승으로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Old Navy to Open New Store in Biggest NYC Retail Lease of 2025

Old Navy, 2025년 뉴욕 최대 규모 소매 임대 계약

- Gap Inc.의 브랜드 Old Navy가 뉴욕 미드타운 헤럴드 스퀘어에 5,110m²(약 55,000평방피트)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을 열기로 하며, 올해 뉴욕시 최대 규모의 리테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.
- Old Navy는 해당 신규 매장을 통해 몰입형 디지털 중심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, 브랜드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확장을 추진했다.
-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맨해튼 리테일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며, 의류업체들이 2025년 1분기에만 14만8000제곱피트 이상을 임대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뉴욕증시, 美英 합의 후 무역협상 기대감에 주요지수 동반 상승 다우존스지수 0.62% ·S&P 500지수 0.58% 올라...나스닥 1.07%↑

8일(현지시간) 발표된 미국과 영국 간 무역 합의가 뉴욕증시에 훈풍을 불어 넣으며 주요 지수를 일제히 끌어 올렸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4.48포인트(0.62%) 오른 41,368.45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.66포인트(0.58%) 오른 5,663.94를 기록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25. 5. 9. 오후 2:20

Email from KOCHAM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